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주일 예배 드려

2, 3부 예배시간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찬양대 특송과 양코르 찬양대 답송 있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된다. 오늘 2, 3부 예배 시간에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실버 찬양대 50명의 특송과 양코르 찬양대 30명의 답송이 있을 예정이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찬양대는 순수하게 동호회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러

시아까지 다녀올 정도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양코르 찬양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왔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영상과 특송, 답송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어르신 사역을 통해 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올 한 해를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추수의 기쁨을 가슴에 가득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미술인 선교회 오늘부터

열흘간 추수감사절 기념 작품전시회 '움' 열려

미술인 선교회는 우리교회 미술인 및 소속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 기념 작품전시회 '움'을 통해 총 25점을 출품할 예정이다.

작품의 주제는 감사와 기쁨이며, 전시일정은 오늘(추수감사주일)부터 30일(수)까지 열흘 동안 지하 1층 식당의 작은 방을 이용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관람시간은 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단, 23일(수)은 대학수학능력입시관계로 학교출입이 오후 5시까지 불가하기에 수요일 저녁예배 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개관할 예정이다.

'움' 작품전시회를 위해 교회내 각 분야 미술 관련 전문인들이 몇 달 전부터 함께 모여 논의하고 계획한 것을 이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과 27일 주일은 지하 1층 식당의 작은 방에서 식사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해 드린다. 열흘동안은 전시시간외에는 작품훼손, 도난 방지 차원에서 제2식당 문을 닫게 된다. 성도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 기념 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작가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직분생략).

강정임 공숙자 광성희 김종학 김종화 동경숙 박재현 신명식 양재열 왕미자 이영미 이영화 이혜경 한중선

길가에교회 지난 주일부터

번식기도회 동화학원에서 드려져



지난주일 오후 4시, 길가에교회는 남양주시 동화중고등학교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땅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며 기쁨이었다. 4~5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길가에교회를 통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용인에 사는 한 가정은 길가에교회 첫 어린이들이 될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송파에 거주하는 어느 집사님 가정은 선교

지를 향해 떠나는 심정으로 번식교회에 동참을 결심하는 등 신실한 일꾼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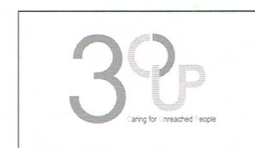
길가에교회 담임인 이인호목사는 여호수아 6장 10~1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둘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외치라!" 하는 날까지 기다렸듯이 길가에교회는 외부에 전단지나 포스터, 플래카드 등을 붙이지 않고 조용히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행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며 그 음성으로 민감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좋았다더라. 저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더라는 말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려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는 주저 없이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했다.

길가에교회 기도회는 동화중고등학교 채플에서 매주일 오후 4시에 시작해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되며, 기도회 후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2면에서 계속)

30CUP WORSHIP SERVICE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있어



오늘 오후 4시 30CUP WORSHIP SERVICE가 드려진다. 30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역자 컨퍼런스> 지난 토요일에 은혜 가운데 열려



지난 11월 12일(토) <가정사역자 컨퍼런스>가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 개최되었다. 28커플이 함께 모여 먼저 온 순서대로 다정한 모습으로 부부 촬영을 하고 찬양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다음, 가정사역팀 담당 교역자인 정희성 목사의 그간 주님의교회에서 있었던 1년 간의 사역 내용을 듣고 팀원 부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옆 건물에 위치한 <민들레 영토>에서의 저녁식사는 분위기와 맛, 실내장식 모두 좋았다. 문동학 담임목사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색소폰 연주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부부가 함께 다정히 앉아 색소폰소리로 들리는 찬송가를 음미했고, 식사 후엔 사단법인 지구촌 가정훈련원의 이병준 목사의 이고그램(ego-gram)을 통해 나와 배우자가 서로 표시한 성격분석내용을 그래프로 그려 각 가정별로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3가지의 자아상 (Parent, Adult, Child)을 통해 서로의 강한 면과 연약한 면을 알아내고 각 개인과 부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받는 시간이 되었다. P,A,C 의 수치가 서로 비슷하면 자아가 균형 잡혀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고그램은 단지 거울

에 불과한 것, 어떤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좋고, 나쁜 것은 아니다.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경험이 적다는 것이며 그것을 더 경험해 보고자 하는 용기있는 결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모든 심리 검사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나와 내 배우자의 타입에만 얽매이지 말고, 나와 배우자가 부족한 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 서로 조절해 주며 직면하여 경험해 가고자 하는 용기가 바로 모든 가정의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 이 컨퍼런스에서 2006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될 가정사역을 돕겠다고 19가정이 헌신해 주었다. 각각 따로 여러 부서에서 이미 봉사하고 있어 부부가 연합하여 함께 또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하는 그 길에서, 더욱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기에 헌신해 준 가정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번 기회에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도 내년 시행될 행사에, 참여자로, 또는 사역자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우리교회와 나라에 가득해 지는 그 날을 소망한다.



선교지에서 날아온 편지

존경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의 가시밭을 일구어 왔습니다. 많은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땀방울이 귀하게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아인 사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일반인들과 함께 하려니 일이 벅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폭이 넓어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과 27일은 블라디보스톡 한국 교육원 후원으로 교회와 학교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웃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겸한 귀한 자리였습니다. 11월 8일은 가을 방학을 한 농아인 학생들이 교회서 1일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10월 23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은 내년 추수 감사예배 때까지 무명으로 이삭 헌금(구제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서 작은 헌금함을 만들어 이삭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남기는 여유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비록 예배당은 협소하지만 러시아 지도의 절반 지역 농아인 교회 지도자들의 세미나가 12월 1-4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주제를 농아인 지도자들 스스로 정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장소로는 부족하지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예배당이 건축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저들의 마음과 물질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 물가가 한국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된 듯 하지만 시민들의 시장바구니는 초라합니다. 11월 3일부터 교회서 매주 목요일 점심 무료 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외롭고 추운 이들이 성전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멀지않은 이 때에 많은 것을 느끼며, 때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와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며, 주님을 섬겨 오신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06년에는 더 부지런한 일꾼되어 주님을 많이 기쁘게 해 드리는 종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풍성함이 가정과 교회, 일터에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05년 11월 11일 늦은 밤
사랑의 빛진 작은 종들 빅토르, 백경숙 선교사 드림



(1면에 이어서)

길가에교회 지난 주일부터 번식기도회 동화학원에서 드려져



이 기도회를 위해 매주일 오후 3시 20분 주님의교회 정문에서 승합차가 출발하며, 기도회가 끝나고 주님의교회에 도착하는 시각은 대략 오후 6시가 된다. 찾아오는 길은 길가에교회 홈페이지(www.gilga-e.org)를 참고하거나, 김근호 집사(011-0739-6229), 김영훈 집사(010-7146-6331)에게 연락 바란다. 또한 길가에교회 교회학교 예배용으로 사용될 업라이트 피아노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증할 수 있는 성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길가에교회 창립예배는 오는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에 드려지게 된다.

4부 예배 "오늘"

4부 예배 "오늘"은 앞으로 2주간 <나쁜 놈들과 살아가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주는 "손해 그리고 마음의 상처"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하는 손해와 상처가 있지만 이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를 영상과 함께 생각하며 그 의미를 나누게 된다. 역울한 일들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그 의미를 가장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듣게 될 것이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주관 경로당 경로잔치 열려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교회가 박동수 집사를 관장으로 위촉하여 위탁 경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기관이다.

이번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중랑구 소속 경로당 98개중 30여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로잔치가 12월 1일 (목) 열리게 된다. 참석 예상 인원은 250여명이다.

당일 행사 사회자로 우리교회 박상규 집사를 섭외중에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성도들께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은 생활용품 위주로 경품을 협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청을 받고자 함이다. 생활 용품 위주의 경품을 협찬할 수 있는 성도들은 신청을 교역자실로 해주면 된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오늘 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유아세례를 위한 부모교육 진행중에 있어

유아세례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는 12월 7일 수요일예배 중에 진행될 이번 유아세례부모교육은 총 12명의 자녀들 둔 가정의 부모가 '세례의 의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부모'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양육'이라는 주제로 3주간의 교육이 있고 친지들이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부모의 서약식을 거쳐 세례예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모든 예식과 교육 및 행정이 이루어지는 이면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역자들과 부모의 신앙과 일정을 돕는 사역자들의 숨은 손길이 있다. 이 세례예식팀의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서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힘써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동안 부모들은 자녀들이 입교식때 기억할 만한 앨범을 만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쓰고, 자녀가 성장할 가정을 더욱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미고자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번 교육을 맡은 정희성 목사는 유아세례를 실시한 가정은 아이들의 책임보다 부모의 책임이 더 크기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책임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귀한 유아세례사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가 20-30년 후에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맺기를 소망한다.



권사회장 박경옥권사 피선



지난 11월 15일 제 3집회실에서 올해 마지막 권사회가 있었다. 일년

을 정산하고 돌아올 해를 기대하며 내년엔 권사회를 섬길 회장으로 박경옥권사를 선출하였다. 권사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이창현목사는 고린도전서 14:1~19의 말씀으로 권사들이 해야 할 사명을 전했다. 그 요지는 첫째,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5절). 둘째, 열매를 맺어야 한다(14

절). 셋째, 일만마디 방언보다 영적으로 깨달은 다섯마디 말씀이 낫다(19절)는 것이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내년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권사회가 되도록 다짐하였다.



소개의 글

신화식 부목사



지난 주일에 새로 부임하게 된 신화식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사역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송교회에서 5년간 교구와 행정을 사역하다가 이번에 주님의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이인호목사가 담당하던 4교구와 사역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아내 박경옥과 두 아들 하림(초등 4년), 예찬(초등 1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당일날 학부모 기도회 시간 가져

이번 주 수요일은 그 동안 30일 새벽기도로 준비해온 대학수능능력 입시가 있는 날이다. 30일전부터 매일 새벽 6시15분에 중랑당에서 청년새벽부흥회에서 함께 한 수능기도를 통해 이미 기도하며 준비해 왔지만 수능날 학부모들의 기도모임이 필요함을 느

끼고 교육부에서 준비한 기도회가 수능날 열린다. 수능날에는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모든 수험생 학부모와 함께 기도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

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는 교육부 홍민기 목사를 비롯하여 이인호, 이창현, 정영환 목사의 말씀과 기도, 교육부 사역자들의 찬양인도로 진행된다. 함께 점심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며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며 담대하게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전국 청소년 사역자 워크숍 가져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본부가 주최하고 브리지임팩트사역원이 주관하는 2005 전국 청소년 사역자 Workshop이 지난 14일 개최됐다. '한국 청소년 사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Workshop은 1부에서 한국 교회 청소년 사역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한국 청소년 사역의 내일이란 주제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로는 손종국 목사(청소년교육선교회), 홍민기 목사(주님의교회 교육목사), 신도배 목사(온누리교회 청소년부)가 패널로는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김채완 목사(코람데오 대표), 윤형진 목사(계산교회 교육목사), 임귀호 목사(부산 SFC 대표), 조성민 목사(새로남교회 교육목사)가 참여하였다. 그 외 소울 싱어즈의 공연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 시간 및 교제 시간이 있었다. 이번 Workshop은 교회 청소년 담당 교역자 및 교사, 청소년 단체 사역자, 신학생들이 350여명이 참석하여 연합과 정보 교류에 대한 청소년 사역자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실감케 해주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교회 청소년 사역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 보고 그 미래를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사역자들의 통찰을 공유하고,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 현장 사역의 고충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 또 그동안 전국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식사하며 깊은 교제와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행사였다.

청년공동체 행정사역팀 선거 은혜 가운데 마쳐

청년공동체의 사역팀과 소그룹의 체제 개편과 함께 사역팀장과 소그룹 리더들이 청년리더쉽팀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부에서는 사역팀장과 리더들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섬기는 행정사역팀의 선출이 투표를 통하여 있었다. 특이했던 것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투표함과 기표소 일체를 무상 임대해 주어 사용하였다. 투표 결과 행정사역팀장에 이만기 형제(1978), 부팀장에 김희주(1979), 회계에 나혜정(1981), 배금자(1983), 서기에 조수현(1983) 등이 선출되었다.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모든 사역팀장들과 리더들이 협력하여 2006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청년 공동체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청년공동체 '그들이 온다' 시리즈 3번째

야쿠자에서 목사로 - 나까지마 테츠오 목사 초청 집회



오늘 오후 1시 30분 지하 중강당에서 청년공동체의 특별 집회 시리즈 세 번째 집회가 있다. 초청된 강사는 나까지마 테츠오 목사로 야쿠자로 자신의 뜻대로 살던 인생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한국인 유학생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오랜 시

간의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놀랍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기까지의 삶과 말씀 전하는 일과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역사를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특별집회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청한다.

청소년세례식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 시간 가져



오늘 오전 9시 30분에는 중고등부가 중강당에서 연합예배로 추수감사주일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청소년세례식이 있다.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간증과 서로의 나눔의 시간도 있어 기대가 된다. 이미 부활주일에 45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아 올해만 8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올해 청소년 예배의 출석이 크게 늘어나고 교육부서의 활성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교회가 더욱 청소년사역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세례식후에는 수요일에 있을 수능을 위하여 고3들을 위한 격려의 시간과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준비된다.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하하는 청소년예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특별히 세례를 받는 학생들과 이번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5-6 교사훈련원 오늘까지 계속돼

중고등부교사를 위한 효율적인 청소년 반목회 고민해



다음 세대의 영적부흥을 위한 교사훈련원이 10월 30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주일은 인천 계산교회 교육목사인 윤형진 목사로부터 '효율적인 청소년 반목회'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윤형진목사는 요즘 교회학교가 효율성을 요구하는 '반운영' 체제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반운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과 지향적 체제로 기존 사회의 조직체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설교자는 '반목회'로 가야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스스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만 교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는 청소년사역에 있어서 직감을 가져야 한다. 순간의 판단은 평소 기도와 말씀과 성경으로 무장이 되어야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이들을 잘 목회할 수 없다. 다음세대를 위해 현재의 교사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사훈련원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각 부서학교별로 모여서 자체 교육을 받을 것이다. 교회학교 각 부서별 전도사들과 함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교사훈련원을 마친 후에는 그 동안 4주간의 교사 교육받은 것을 위로하는 자그마한 소찬이 준비될 예정이다.

2005-6 사역박람회

12월 4, 11일 2주간 열려

2005-6년 교회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의 지원자들을 위해 위원회별로 부스를 마련하여 예배사이시간마다 운영하게 된다. 교회학교 교사 지원, 각 사역팀 지원, 찬양대 지원등의 명단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된다. 각 위원회에서 부스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연결팀에서 스탠드 현수막을 1층 로비에 2가지 제작하여 11월 20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신자홍보팀에서 게시한다.

성탄선물 보내기 행사 계획중

하프타임 사역팀에서는 복지관 노인들께 김장김치를 보내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추수감사주일부터 홍보하여 사역박람회장에서 김장김치 보내기 지원서명을 받는다. 약 140여명분으로 자세한 명단에 사인하고, 12월 20일까지 택배로 복지관으로 우송하거나 18일 주일에 교회로 가져오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4, 11일 2주간 열려

역박람회를 통해 홍보가 될 예정이다. 또한

모자원 어린이들에게 연말 성탄선물 보내기 행사를 겸하여 계획하고 있다. 모자원과 상의하여 어린이들의 성탄선물 목록을 받고 성도들이 선물을 직접 지목하여 선물을 보내는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방식은 예년과 동일하다. 이 행사 역시 사역박람회 기간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성도들께 구체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함글함을 문예지 발간 예정

매주일 나오는 함글함울에 다 신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글함을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